

〈성난 사람들(BEEF)〉에 나타난 이민자 정체성 연구 - 문화적 시민권과 복수의 순환에 대한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전두영*

1. 서론
2. 분노 표출을 통한 모범적 소수계 신화 비판
3. 세대 간(가족 간)의 대립과 문화적 시민권의 재현 방식
4. 분노가 향하는 방향과 복수의 순환에 대한 재현 방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시즌 1에 재현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문화적 시민권과 복수의 순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표출하는 분노와 폭력성은 모범적 소수계 신화의 억압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 이 저항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 간/가족 간 대립으로 확장되며,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서 문화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협상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한편 사소한 도로 위 충돌에서 비롯된 복수의 서사가 끝없이 순환 및 증폭되는 구조는 이민 성공 서사에 가려져 있던 분노의 근원을 노출시킨다. 나아가 〈성난 사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람들>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적 사유를 까마귀 표상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복수의 순환이 단순한 서사 장치가 아닌 세계 인식의 틀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그 분노의 심층에 단순한 경제적 이주의 동기를 넘어, 모국의 상실과 문화적 단절이라는 망명적/난민적 경험 이 자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 서사를 지배해 온 기존의 동화/성공 서사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성난 사람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서사에서 접하는 독자적 지점을 조명한다.

(주제어: 이민자,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적 시민권, 정체성, 망명자, 난민, 모범적 소수계 신화, 음식 시민권)

1. 서론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인 이성진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성난 사람들(BEEF)>(2023) 시즌 1이 <뉴욕 타임스>의 “근래 가장 활기차고 놀랍고 통찰력 있는 작품”¹⁾이라는 평가와 함께 2024년 미국의 주요한 TV 시상식을 휩쓸었다. 특히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의 주요 부문을 수상하면서²⁾ 인종차별의 벽을 작품성의 인정을 통해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³⁾ 흥행 면에서도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1) James Poniewozik, “‘Beef’ Review: Mad in America”, *The New York Times*, 2023.4.5.

2) 에미상은 작품상, 남/여우주연상 등 8관왕을, 골든글로브상은 작품상, 남/여우주연상을 수상하여 3관왕을 차지했다.

3) <성난 사람들>의 성공은 이성진의 이후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은 2025년에 개봉된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썬더볼츠(Thunderbolts)>의 각본가로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제작 대열에

넷플릭스가 집계한 전 세계 콘텐츠 시청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성난 사람들〉은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콘텐츠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다.⁴⁾

〈성난 사람들〉의 흥행은 우선 인간 보편의 감정과 문제를 배우들의 연기력과 사건의 개연성을 통해 잘 표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L. Seneca)가 지적하였듯이 화는 연령과 인종, 민족과 무관하게 맹위를 떨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인데⁵⁾ 이 드라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른바 ‘운전 중 분노’(road rage) 사건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감정의 분출과 가족 간의 대립 문제 등을 예리하게 묘사한다.

〈성난 사람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드라마의 전면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근래 할리우드와 영미권의 TV 드라마 제작사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서사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⁶⁾ TV 드라마 〈김 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2016-2021)과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2018)의 상업적 흥행은 아

입성한다. 이미 MCU에 아시아계 창작자(중국계)가 있었지만, 이전의 방식이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2021)과 같이 아시아적 소재를 다루는 작품에 아시아계를 배치하는 것이었다면 〈썬더볼츠〉와 같은 인종적 맥락과 무관한 작품에 한국계 창작자를 기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https://about.netflix.com/ko/news/what-we-watched-a-netflix-engagement-report>. (검색일: 2024.11.10.)

5)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화에 대하여』, 김경숙 역, 사이, 2013, 160쪽 참조.

6) 〈성난 사람들〉의 제작사인 미국 A24 Films는 2010년대부터 아시아계 이민자 서사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제작하여 그동안 주변화되어 온 아시아계 미국인 서사의 반경을 산업적/미학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미나리〉와 중국인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각각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 A24 Films이 제작한 대중 서사가 수행한 제도화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은지, 「A24의 아시안 어메리칸 영화: 동아시아 가족 드라마에 투영된 이민자의 자기정체화와 멜랑콜리아」, 『영화연구』 제 107호, 한국영화학회, 2026, 237-272쪽 참조.

시아계 이민자의 서사가 더 이상 변방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난 사람들〉에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특히 한국계 미국인이 제작진과 출연진에 다수 포함되었다. 에미상에서 수상한 이성진 감독과 스티븐 연은 1.5세대 한국계이다. 스티븐 연이 연기한 주인공 대니의 동생 폴로 등 장하는 크리스토퍼 영 김과 대니의 사촌 형 아이잭으로 분한 데이비드 최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다.

박찬욱 감독 연출의 드라마 〈동조자(The Sympathizer)〉(2024)의 원작자이기도 한 비엠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은 소수민족 문학 연구자로서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베트남계 및 아시아계 미국 문학 모두를 특징짓는 것들 중 하나는 대체로 크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양의 격렬한 분노는 없다. (...) 게다가 노여움이나 격렬한 분노가 있더라도,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출생국가나 아시아인 가족들이나 아시아인 가부장들 쪽을 향해서만 존재한다.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는 미국 문화에, 혹은 미국이 저지른 짓에 대해 미국에 화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을 감지했다.⁷⁾

비단 아시아계 미국 문학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대중 서사 콘텐츠에서도 격한 분노의 표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응우옌의 지적처럼 작품에서 주요 인물이 발하는 분노는 미국 혹은 미국인을 향해 있지 않다.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며 크게 주목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

7) 비엠타인 응우옌·폴 트란 대담, 「아시아계 미국인의 소설에 나타난 분노」, 『동조자』, 김희용 역, 민음사, 2023, 664쪽. 응우옌은 자신의 소설 『동조자』(2016)의 지배적인 감정이 분노임을 밝힌다. 이다혜, 〈“복잡하고 모순적인 캐릭터가 흥미롭다”-『동조자』작가 비엠타인 응우옌 인터뷰〉, 『씨네21』 제1414호, (주)씨네21, 2023, 21쪽 참조.

이삭의 〈미나리(Minari)〉(2020)도 예외는 아니다. 〈미나리〉의 주인공 한국인 이민자 제이콥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표하는 장면은 자신이 경작한 채소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대도시의 도매업자로부터 접했을 때이다. 채소를 함께 경작한 백인 노동자 폴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제이콥은 도매업자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Korean people, big city, you never trust!”(큰 도시 사는 한국인들 절대 못 믿는다니까!) 미국 이민자로서 미국을 향해야 할 분노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출생국가를 호출하면서 분노의 방향이 어긋남을 보여준다.⁸⁾

그런 의미에서 〈성난 사람들〉이 아시아계 미국인⁹⁾의 분노를 전면에서 드러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⁰⁾ 이 드라마는 한국계 미국인인 대니(Danny Cho)와 베트남/중국계 미국인인 에이미(Amy Lau) 사이의 운전 중 분노

8) 비록 백인 폴이 제이콥으로부터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이 장면에서 폴은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제이콥과 폴이 갖는 고용의 위계관계에도 불구하고, 폴은 백인 미국 사회를 대변하며 제이콥의 분노가 미국 사회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지행은 이 장면을 아시아계 이민자가 백인 사회에 흡수되기 위해 한국인을 공동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해석한다. 이지행, 「아시아 이주민과 아포칼립틱 빌런 정동」, 『아시아영화연구』 제18권 1호, 영화연구소, 2025, 78-79쪽 참조.

9) 본 연구는 Asian American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이윤종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Asian은 동(북)아시아만을 지칭하기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번역할 경우에 이 용어가 너무 포괄적임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동양계 미국인’을 번역어로 택하는데, orient를 통상 동양으로 번역하기에 이 또한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윤종, 「21세기 인종질서 속 동양인들의 위치」,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311쪽 참조. Asian American이란 용어가 1968년 UC 버클리 학생들에 의해 고안되기 전 아시아인을 오리엔탈(동양인)로 통칭했음을 상기한다면, 동양계 미국인은 적절치 않은 번역이다. 캐시 박 홍, 『마이너 펄링스』, 노시내 역, 마티, 2021, 252-253쪽 참조.

10) 같은 맥락에서 드라마의 원제인 ‘BEEF’를 ‘성난 사람들’로 번역한 것은 분노를 전면에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어로서 beef가 ‘불화’(feud), ‘불평하다’(complain) 등의 의미가 있고, 모든 에피소드의 타이틀 카드에 고깃덩어리 그림이 등장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감독은 표제에 복합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한다.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드라마 내내 계속 이어진다. 이 드라마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것 역시 분노와 격노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화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성난 사람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동(affect) 이론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권두현은 이 드라마에 재현된 분노를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동이자 초국적 감정 산업의 경제로 분석하였으며,¹¹⁾ 김유진은 멜랑콜리아와 분노라는 정동을 중심으로 하되 〈성난 사람들〉이 아시아인의 인종적 정체성보다는 보편적 경험을 드러내는 데 더 주력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한경희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국계 미국인 서사에 나타나는 인정 욕망의 젠더화 방식에 주목하여 대니의 가부장적 구속과 실패의 자명성을 논의하였다.¹³⁾

이상의 연구는 〈성난 사람들〉에 재현된 분노를 정동, 멜랑콜리아, 젠더 등 각기 다른 렌즈로 조명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가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치하게 분석한 데 비해, 그 분노가 왜 ‘복수의 순환’이라는 특정한 서사 구조로 형상화되는지, 그리고 그 순환 구조가 동양적 사유 및 이민자의 문화적 시민권 협상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분노의 심층에는 모국의 상실과 문화적 단절이라는 망명적/난민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으나, 이 차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공백은 이민자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11) 권두현,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분노와 사랑: 〈비프〉와 〈엘리멘탈〉, 초국적 감정 산업의 정동 경제」, 『동방학지』 제205집, 국학연구원, 2023, 45-51쪽 참조.

12) 김유진, 「멜랑콜리아와 분노: *Beef* 속 아시아계 미국인 정동의 (비)인종화」, 『현대영미드라마』 제36권 3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23, 59-60쪽 참조.

13) 한경희,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계 미국인 서사에 나타나는 인정 욕망의 젠더화 방식 및 그 의의」, 『상허학보』 제74집, 상허학회, 2025, 203-205쪽 참조.

이민자의 정체성은 단일하거나 불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민자에게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절실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성진 감독 스스로가 이민자 정체성의 불분명함을 겪었다고 보이는데, 11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영어 이름인 소니(Sonny)를 30년 가까이 쓰다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자 한국어 이름인 성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¹⁴⁾ 이처럼 이민자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는 것이며, 이 협상의 과정 자체가 〈성난 사람들〉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다.

본고는 이러한 공백에 개입하여, 〈성난 사람들〉에 재현된 분노의 감정과 복수의 방식이 한국계 이민자의 정체성과 동양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화적 시민권’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분노의 발화에서 확산을 거쳐 심층에 이르는 분석의 동선을 따른다. 먼저 분노가 모범적 소수계 신화에 대한 저항으로 발화하는 양상을 살피고(2장), 이어서 그 분노가 세대 간(가족 간) 대립을 거쳐 문화적 시민권의 협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하며(3장), 끝으로 복수의 순환 구조가 동양의 순환론적 사고와 망명적 경험이라는 심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규명한다(4장). 이 과정을 통해 감독이 이 드라마에 녹여내고자 했던 ‘한국적인 것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¹⁵⁾

14) 이성진은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Bong Joon-ho’로 올라가는 게 멋져 보였고, 미국인들이 봉준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한다. 김희경, 〈‘성난 사람들’의 글로벌 열풍〉, 『한경 BUSINESS』, 제1469호, 한국경제매거진, 2024, 47쪽 참조.

15) 최민지,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 “한국적인 것,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통한다”〉, 『경향신문』, 2023.8.17., 19면.

2. 분노 표출을 통한 모범적 소수계 신화 비판

화는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화냄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절제한 분노 표출 혹은 무조건적인 분노의 억제를 동시에 경계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을 중용의 덕을 벗어난 성마른 사람이나 무절제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타자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생긴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의 욕구를 낳고 복수의 마음은 즐거움이 수반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

1991년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대니는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받는 등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 드라마의 첫 장면은 대니의 내면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울분과 억울함이 오랜 시간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살을 결심한 대니는 숯불 그릴(오븐)을 반품하려 하지만 마트의 점원은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대니는 단순 변심이라 답하고 이 마트에는 '아묻따 정책'(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no-questions-asked policy)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지만, 점원은 통명스럽게 자신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말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점원은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는 반품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대니는 울분에 차 자신의 차에 탄다.

이민 1.5세대로서 대니와 에이미에게는 공통적으로 억눌린 감정이 엿보인다.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이민 생활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대니가 마트에서 반품을 거부당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마트 점원을 향해 불평

1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길, 2011, 53쪽 참조.

1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7, 129쪽 참조.

(beef)을 쏟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대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군중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내보이는 것을 이민자로서 대니는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 에이미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익명의 상대와 통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밝힌다. “싫지 않은 척하는 게 싫어요.”(I hate pretending that I don’t hate thing.)¹⁸⁾ 이 억눌린 감정을 대니는 마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급 자동차의 운전자 에이미에게 쏟아낸다. 대니는 에이미의 자동차를 뒤쫓으며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고 에이미는 그런 대니를 조롱하며 감정을 발산한다.

이민자들의 억눌린 감정과 자기 제어는 미국 사회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규정하는 이른바 ‘모범적 소수계 신화’(model minority myth)와 관련이 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가둔 미국 정부는 전후 일본계 미국인을 재활(rehabilitation)하여 다시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 작업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값싸게’(on the cheap) 반(反)인종주의를 선전하게 하였다. 미국 정부는 “만약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에 적응할 수 있다면, 어떤 인종도 가능하다”라고 선전했고, 이는 모범적 소수계 신화가 공적 담론에서 처음 출현한 모습이다.¹⁹⁾

18) 대니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이민 생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그는 운전 중 분노 사건 직후 집에 돌아와 동생 폴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며 세상을 한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주 그냥 똥을 먹으면서도 웃어야 하는 꼴이야.”(Like you’re gonna eat shit with a smile on your face or some shit.)

19) Claire Jean Kim, *Asian 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 125 참조. 반면 캐시 박 흥은 모범적 소수계 신화의 시작을 1965년 미국 정부의 이민 금지 해제로 본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 출신 가운데 의사, 기술자 등 엄선된 전문가에게만 미국 비자를 내주었고, 이미 교육 수

아시아계 미국인이 모범적 소수계라는 지위를 얻어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지만 앞서 말한 자기 제어와 감정의 절제만 그 대가로 치른 것은 아니다.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 가장 크게 치른 대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동화(assimilation)는 권력이 아니었고 아시아계 이민자가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면 모범적 소수계 자격은 이제 그 이민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돌변한다.²⁰⁾ 모범적 소수계 담론이 신화인 이유는 이 담론이 미국 내 인종 역학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었을 뿐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계 미국인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은 미국인들은 아시아인을 다 안다는 식으로 굴며 미국 사회의 인종 역학에 아시아인을 향한 다음과 같은 담론이 있다고 주장한다. “너희[아시아인]가 왜 회를 내? 다음은 너희가 백인이 될 차례야!”²¹⁾ 백인이 부여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특별한 위치는 ‘명예 백인’(honorary white)의 기호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학자 그레이스 M. 조(Grace M. Cho)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가 실제로는 배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백인성’(whiteness)을 동화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백인은 아시아계의 동화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동화를 정상적인 사회 과정으로 역설함으로써 인종 담론에서 백인우월주의와 암묵적으로 결탁해 있는 명예 백인 담론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²²⁾

백인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은 모범적 소수계로서 백인이 정한 법과 규칙을 잘 지켜 백인으로부터 좋은 평판

준이 높고 고도로 훈련받은 아시아인의 성공을 두고 미국 사회는 ‘아메리칸드림’의 실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캐시 박 홍, 앞의 책, 31쪽 참조.

20) 위의 책, 46쪽 참조.

21) 위의 책, 39, 57쪽 참조.

22) 그레이스 M. 조, 『유령 연구』, 성원 역, 동녘, 2025, 232-250쪽 참조.

을 얻어야 한다. 미국의 건국 이래 인종 역학에서 단 한 번도 권력을 나누거나 빼가지 않은 백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백인으로부터 계속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언젠가는 그들도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 건국 당시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들만이 건국의 조상이기에 아시아계 미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다.

〈성난 사람들〉에서 에이미는 자신의 사업을 투자자인 백인 조던(Jordan)에게 좋은 조건에 판매하려 노력한다. 〈미나리〉에서 이민자 제이콥과 백인 노동자 폴이 고용의 위계관계에 있었다면, 에이미와 조던은 투자를 매개로 한 아시아계와 백인 간의 전형적인 위계관계를 보여준다. 명백한 갑을관계에서 조던은 에이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그 침착한 선불교적인 뭔가가 있거든.”(You have this serene Zen Buddhist thing going on.) 조던이 ‘선불교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해했든 간에 이 표현은 아시아계를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모범적 소수계에 가두는 힘을 갖는다.²³⁾

주인공 대니가 겉으로는 모범적 소수계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노력만큼 사회에서의 성공이 성취되지는 않는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미국 사회에 있지만, 경쟁의 실상은 공정하지 않다. 대니는 끊임없이 탈법과 편법의 유혹을 받고 그의 사촌 형인 아이작의 불법성은 대니가 성공을 위해 취하고 싶은 방법을 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니가 불법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원동력은 다른 무엇보다 장남으로서 갖는 책임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²⁴⁾ 에이미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그 성공의 이면

23) 김유진은 조던의 취미인 비서구권 문화재 수집을 예로 들며 에이미와 조던의 위계관계가 계급적인 동시에 인종적임을 지적한다. 김유진, 앞의 글, 71쪽 참조.

에는 편법 사용과 같은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 보인다. 그녀는 투자자인 조던에 대한 로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한다. 사회적 성공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공은 늘 분노에 차 있고 이 분노의 근원에는 이민자로서의 울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파괴된 관계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가족관계를 통해 묘사되는 이민자 정체성을 살펴본다.

3. 세대 간(가족 간)의 대립과 문화적 시민권의 재현 방식

미국 내 인종 역학만이 아시아계 이민자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스스로도 자신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민자가 이민자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속한 특정 공간 A에서 또 다른 특정 공간 B로 이동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민자에게 어느 공간이 더 우선순위를 갖는지를 가리자면 그것은 틀림없이 공간 B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민자는 자신이 공간 A를 떠나고 싶지 않은 좋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공간 A를 떠나왔을 수 있다.²⁴⁾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통상 이민자는 지금 있는 새로운 공간 B에 ‘속해야 할’ 더 좋은 이유가 있

24) 모텔을 운영하던 대니의 부모는 모텔 운영의 불법성이 적발되어 현재 한국에 귀국해 있다. 대니의 부모가 불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대니의 사촌 형 아이작의 불법 유통이 모텔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텔의 업주에도 책임을 물어 모텔 운영이 종료되었다. 대니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부모님을 다시 미국에 모셔야 한다고 다짐한다. 한경희는 대니가 가족이라는 가부장적 공동체에 구속될수록 오히려 실패가 자명해짐을 지적한다. 한경희, 앞의 글, 204쪽 참조.

25) 에이미의 경우 어머니가 망명을 통해 미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베트남전의 보트 피플(Vietnamese boat people)로서 미국에 망명했고 어머니의 전쟁 트라우마는 딸인 에이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공간 A가 아니라 공간 B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민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 공간에 적응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공간 B가 자신에게 갖는 상대적인 우위성을 인정하는 셈이다.²⁶⁾

〈성난 사람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부모 세대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을 떠나왔다.²⁷⁾ 그들이 고국을 떠난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상대적인 우위성을 이민 전부터 인정하고 있고 자신들을 받아준 미국 사회에 대해 일종의 빚진 심정을 지니고 있다. 이 빚진 심정은 모범적 소수계 신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민자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게 한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미국’에 대한 부채 의식은 부모 세대(1세대)의 이민자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세대는 자기들이 이만큼 사는 것을 미국 덕분으로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부모 덕분으로 여긴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서구 사회의 자아 형성은 집과 부모의 배경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지적한다. 반면 동양 사회는 인생 내내 확대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며 정체성이 형성되기에 서구 사회의 자아 형성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²⁸⁾ 아시아계 이민자의 경우에도 주체가 정체성을 형성할 때 가족 간의 역학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6) 최인훈의 소설 『화두』(1994)에서 미국 체류를 경험하는 주인공(화자)은 다양한 이민자를 직접 만난 후 이민자가 고국과 미국에 대해 갖는 공간적 인식에 대해 예리한 시선을 보여준다. 전두영, 『『화두』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상호텍스트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210-211쪽 참조.

27) 에이미의 남편인 조지 나카이(George Nakai)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예술가로서 일본인 이민 1세대이다.

28)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권기돈·하주영 역, 새물결, 2015, 90-92쪽 참조.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부채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가 동일한 것은 불평은 접어두고 직업전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²⁹⁾

세대 간 갈등의 정도를 놓고 보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에이미와 그녀의 부모이다. 대니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고 한국에 체류 중인 부모를 다시 미국으로 모셔 오고자 한다. 드라마에서는 이 책임감이 부모가 미국에서 새로 살 집을 건축 도급업자(construction contractor)인 대니가 직접 건축하는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 반면 에이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기억과 어머니의 베트남전 트라우마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조지와미의 부부싸움 끝에 에이미는 2년 만에 부모의 집을 찾지만 관계의 복원은 쉽지 않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2년 만에 만난 딸에게 자신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했고 희생했으니 별장을 사 달라고 요구한다. 에이미는 부모가 현재 사는 집의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아버지의 요구가 과하다고 불만을 표한다.

부모와의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와 설거지를 하는 에이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외도 사실에 대해 말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무엇이든 과거의 것은 묻어두라”라고 말하며 대화를 서둘러 끝낸다.³⁰⁾ 그러나 정작 어머니 자신은 과거의 것을 묻어두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어린 딸에게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³¹⁾ 에이미는 남편 조지와 함께 심리

29) 캐시 박 흥, 앞의 책, 247쪽 참조.

30) 에이미가 시어머니인 푸미(Fumi)에게 ‘결끄러운 일’(elephant in the room)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말을 꺼내자 푸미는 자신과 남편의 일을 사레로 들며 에이미에게 운전 중 분노 사건 등 과거의 일은 모두 무시하자고 말한다(에피소드 6).

31) 에이미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유령(에피소드 8)은 그레이스 M. 조가 제시한 ‘초세대적인 배회’(transgenerational haunting)의 서사적 변주로 읽을 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회고한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베트남 전쟁 중 모 든 새들이 베트남인들에 의해 잡아먹혔음을 딸에게 이야기했고 에이미는 어머니의 경험이 어머니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할 수 있 겠느냐고 심리 상담사에게 묻는다.³²⁾

비록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식사 자리이지만, 에이미와 에이미의 부모는 베트남식의 국수를 함께 먹는다(에피소드 8). 이 장면에서 베트남식 국수는 에이미 가족이 공유하는 유일한 문화적 공통 기반으로 기능한다.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전쟁 트라우마, 딸의 원망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속에서도 세 사람은 같은 음식 앞에 앉는다.³³⁾ 음식은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지만, 갈등의 한가운데서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자리를 유지시키는 매개로 작동한다. 이러한 음식의 매개적 기능은 세대

있다. 조는 한국 전쟁의 기억이 공식 담론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가정 내부에서 침묵된 형태로 지속되며, 특히 어머니의 언어화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딸에게 유령적 현존(ghostly presence)으로 전달된다고 분석한다. 〈성난 사람들〉에서 에이미 어머니의 베트남전 트라우마가 언어화되지 않은 채 딸의 시각 속에 유령으로 현현(顯現)하는 구조는 이러한 세대 간 전이의 서사적 형상화에 해당한다. 그레이스 M. 조, 앞의 책, 특히 67-70, 309-310쪽 참조.

32) 박은지는 A24 Films의 아시아계 서사가 재현하는 이민 2세대의 안정된 안착 이면에 1세대가 겪었던 상실의 기억이 ‘이민자 멜랑콜리아’로서 잠복해 있음을 지적한다. 박은지, 앞의 글, 259쪽 참조. 나보령은 1.5세대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M. 조의 회고록 『전쟁 같은 맛(Tastes Like War)』을 분석하며 한국 전쟁 트라우마를 지닌 어머니의 기억이 딸(후속세대)에게 유령적 기억이 되어 편재함을 지적한다. 나보령, 「유령을 위한 레시피」, 『인문논총』 제81권 1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4, 151쪽 참조.

33) 부모 세대의 전쟁 트라우마와 이산의 기억을 딸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에이미의 위치는 차학경의 『딕테』가 보여주는 디아스포라 여성의 계보 위에 놓인다. 차학경이 모어가 아닌 언어로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더듬어 기록하듯, 에이미 역시 부모의 상처를 온전히 자기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자리에서 번역 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다. 이 연결은 본고의 결론에서 다시 논의된다.

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촌 형 아이작을 대니가 처음 만난 곳은 한국 식당이다. 돈 문제로 실랑이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메뉴를 시키고 깎두기에 설렁탕 먹는 것에 집중하자는 데에 합의한다. 대니는 동생 폴과 갈등할 때가 많지만 라면을 함께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가족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서양의 관용구는 이민자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늠자로 기능한다.³⁴⁾ 이민자에게 있어서 특정한 음식은 유대(bonding)와 공통되는 기반(common ground)으로의 귀환을 상징하는 매개가 된다.³⁵⁾ 그러나 〈성난 사람들〉에서 음식의 재현은 단순한 정체성 표지를 넘어, 문화적 시민권이 복권되고 협상되며 좌절되는 구조적 장(場)으로 작동한다. 인도계 미국인 학자인 아니타 마누르(Anita Mannur)는 이민자에게 있어서 ‘음식 시민권’(culinary citizenshi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음식 시민권은 주체가 음식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주체의 위치를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정동적(affective) 시민권의 한 형태이다.”³⁶⁾ 〈성난 사람들〉에서 단 한 번도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작이 설렁탕을 주문할 때 “아가씨 여기요, 설렁탕 두 개요.”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을 매개로 한국계라는 주체의 위치

34) 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18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사바랭(Brillat-Savarin)은 음식을 통해 신분과 사회적 위상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였다. 한미야, 『H마트에서 울다』를 통해 생각해 보는 음식과 치유의 문제, 『문학과환경』 제23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24, 248쪽 참조.

35)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 자우너(Michelle Zauner)는 한국 음식이 매개가 된 한국인 정체성으로의 귀환을 모친 상실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미셸 자우너, 『H마트에서 울다』, 정혜윤 역, 문학동네, 2022, 170쪽 참조.

36) Anita Mannur, “Culinary Nostalgia: Authenticity, Nationalism, and Diaspora”,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Vol. 32, No. 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3.

를 확인하고 언어를 통해 문화적 시민권을 복권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아이잭의 이 행위는 음식 시민권의 가장 선명한 발현 양상, 즉 주체가 음식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 위치를 능동적으로 선언하는 국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난 사람들〉은 이 선언적 국면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 시민권이 협상과 좌절의 국면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함께 드러낸다.

마누르는 음식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민족적 통합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 되며, 이 상징은 문화적 특수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음식이 이민(dislocation)이 주는 고통에 대한 임시 처방(palliative)밖에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³⁸⁾ 고국의 음식을 취하며 가족과 친지들은 민족적 통합성을 드러내지만 가족 문제를 비롯한 이민자가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도 임시 처방밖에 될 수 없다.

〈성난 사람들〉은 이민이 주는 고통을 또 다른 음식 섭취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낸다. 대니의 동생 폴은 에이미에게 자신의 형이 이타적이지만 불행하기에 그와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폴에 따르면 형 대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형은 주기적으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장 맛있다고 알려진 버거킹을 찾아 치킨샌드위치 네 개를 혼자 먹는다(〈그림 1〉 참조). 대니가 혼자 치킨샌드위치를 먹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샌드위치를 픽업하여 먹는 곳은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집이 세워질 언덕이다. 폴에게 형의 기이한 행동은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있지만 대니는 자신이 혼자 짊어지는 삶의 무게를 가족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겨내고자 하며 이는 그가 게걸스럽게 샌드위치를 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대니가 혼자 있을 때만 드러나는 탐식은 그가 모범적 소수계 신화에 갇혀 있음을 드러낸

37) 『H마트에서 울다』를 분석하는 한미야는 한국 음식을 통한 자아 통합과 관계의 회복을 이 에세이의 저자를 통해 든다. 한미야, 앞의 글, 261쪽 참조.

38) Mannur, 앞의 글, p.13 참조.

다고 할 수 있다.³⁹⁾ 아이잭이 설령탕을 통해 한국계로서의 주체 위치를 선언하고 에이미 가족이 베트남 국수를 통해 갈등 속에서도 문화적 유대를 협상하는 것과 달리, 대니의 폭식은 음식 시민권이 작동을 멈추는 지점을 드러낸다. 가족이 아닌 혼자서 고국의 음식이 아닌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부모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빈 언덕 위에서 먹는 이 장면은, 마누르가 지적한 음식의 '임시 처방'으로서의 한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음식을 통한 민족적 유대도, 가족 간의 공유도 부재한 이 장면에서 대니의 탐식은 문화적 시민권의 좌절된 형태로 읽힌다.



〈그림 1〉 *BEEF* 홍보용 이미지(넷플릭스 제공)

형제간의 이해와 소통이 어려운 것을 동생 폴의 책임만으로 전가할 수 없다. 대니는 과거인 2008년(에피소드 8)에 고등학생이었던 폴의 대학 지원서를 모두 갖다 버렸다.⁴⁰⁾ 대니는 동생이 자신과 함께 건축 현장에서 일

39) 김유진은 대니의 폭식을 그가 읽는 멜랑콜리아(우울증)의 파괴적 면모로 이해한다. 멜랑콜리아를 모범적 소수계의 인종적 경험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김유진의 논의는 본고가 주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 김유진, 앞의 글, 66-68쪽 참조.

40) 인터넷이 이미 상용화된 2008년의 미국에서 대학 지원서를 우편으로만 접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은 매우 중요한 업무는 여전히 우편으로만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접수하는데, 대학 지원서도 그중의 하나이다.

하기를 바랐고 자신이 진학하지 못한 대학을 동생이 다니게 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⁴¹⁾ 드라마의 후반부(에피소드 8)에서 대니는 폴에게 동생이 자신과 똑같은 길을 바랐기에 대학 지원서를 갖다 버렸다고 고백한다. 대니는 폴에게 이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고 폴은 절도에 실패한 조던의 집에서 홀로 도망가지만, 드라마는 폴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민자 부모 세대는 이른바 아메리칸드림을 가졌고 이 꿈은 부모 세대에게 이민자 현실의 역경을 견디면 성공을 성취할 것을 믿게 했다. 미국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성공 서사’가 부모 세대에게는 절대적 신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자녀 세대에게 아메리칸드림은 ‘이민 서사’ 중의 하나일 뿐이다. 〈성난 사람들〉은 이민자 성공 서사가 그동안 은폐해 왔던 세대 간의 대립과 가족 간의 불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아시아계 이민자의 적나라한 삶을 재현해 내고 있다.

4. 분노가 향하는 방향과 복수의 순환에 대한 재현 방식

2장에서 언급했듯이 분노는 격한 감정의 분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의 욕망을 낳고 복수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수반된다. 〈성난 사람들〉의 중심적 서사는 운전 중 분노 사건 이후 대니와 에이미가 서로에게 행하는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 등을 겪는 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장면은 서

41) 한경희는 대니가 동생 폴의 대학 입학에 방해한 행동이 대니가 갖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불가능성이 동생에게 폭력적으로 적용된 것임을 지적한다. 한경희, 앞의 글, 204-205쪽 참조.

로에 대해 복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이다. 드라마 포스터 (<그림 2> 참조)에 적힌 문구인 “Revenge is best served raw.”(복수는 날 것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복수의 즐거움을 드라마의 표제인 ‘BEEF’와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이다.

영어권 화자에게 드라마의 표제인 ‘BEEF’는 속어(slang)로서 ‘불화’(feud)의 의미가 먼저 받아들여진다고 하겠다.⁴²⁾ 세네카는 화가 화합을 바라는 인간 본성에 반하여 분리를 원하고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다.⁴³⁾ 결과적으로 분노는 불화와 파괴를 양산하지만, 복수의 차원에서 볼 때 분노는 고기(beef)가 되어 복수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분노와 육류를 동일한 위상에 놓을 때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두 요소를 섭취함으로써 공허함과 허기를 채우고 만족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육류의 섭취가 심장 질환(heart disease)을 유발하듯이 지나친 분노의 표출은 마음(heart)에 영향을 준다.⁴⁴⁾

42) 불화라는 의미로 beef가 쓰이는 예는 대중 서사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4)에서 비밀 요원 해리 하트는 펍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동네 불량배에게 주인공 엑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So whatever your beef with Eggsy is”(너와 엑시의 불화가 무엇이든 간에)

43) 세네카, 앞의 책, 39쪽 참조.

44) Poniewozik, 앞의 글 참조.



〈그림 2〉 BEEF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속어로서 beef는 타자를 사물화하는 인식론에 기반한 표현이다. 주체가 화에 휩싸이게 되면 타자는 더 이상 인격을 갖춘 존재가 아닌 그저 고깃덩어리(beef)처럼 주체에게 인식될 뿐이다. 대니는 운전 중 분노 사건에서 자신이 에이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⁴⁵⁾ 이 사건 이후 대니와 에이미는 서로를 고깃덩어리처럼 사물화하고 오로지 그 고깃덩어리에 대한 복수만을 염원한다. 세네카는 영혼이 없는 물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만,⁴⁶⁾ 인간이 화를 내고 그 화가 복수가 되어 순환하는 방식의 실상은 오히려 속어로서 beef라는 표현이 드러내는 의미에 가깝다.

분노와 복수에 대한 순환론적 사고는 〈성난 사람들〉에서 까마귀 표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피소드 10)는 외진 곳을

45) 세네카는 화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주장한다. 세네카, 앞의 책, 128쪽 참조.

46) 위의 책, 128쪽 참조.

해매는 두 주인공을 내려다보는 까마귀 두 마리의 대화로 시작한다.

까마귀 1: 여자[에이미]도 남자[대니]도 상태가 안 좋아. 나한테 밥 줬던
남자네. 또 주면 좋겠다. 저 여자가 집에서 우리 삼촌한테 겁줬어.
까마귀 2: 겁줬다고? 똥이라도 지렸대?
까마귀 1: 응, 지렸지. 삼촌한테 무기를 겨눴거든.
까마귀 2: 이 전쟁 행위가 입증 가능할까?
까마귀 1: 증언을 부탁해볼게.
(까마귀 1이 까마귀 무리를 향해 짹짹거리고 이어서 까마귀 무리가 짹
거린다.)
까마귀 1: 확인받았어. 화가 나.

이성진 감독은 드라마에 까마귀의 역할을 넣은 것이 약간의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더하지만, 그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만물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⁴⁷⁾ 서양과 비교할 때 동양 사회는 상호관련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관련을 맺는 주체가 비단 인간으로만 제한되지 않는 것이 또한 동양적 사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 맺음은 세대와 현생을 뛰어넘어 영향을 준다고 믿기도 한다.⁴⁸⁾ 이러한 차이는 까마귀라는 동일한 기표가 각 전통에서 수행하는 서사적 기능을 비교할 때 보다 선명해진다. 서양 문학의 전통에서 까마귀는 죽음과 비가역적 상실의 표지로 기능해

47) Phillipe Thao, "What Do the Crows Mean in *BEEF*?", <https://www.netflix.com/tudum/articles/what-the-crows-mean-in-beef-explained>, 2023., (접속일: 2024.11.10.)

48)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인 셀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전생(前生)을 영화의 표제(Past Lives)로 내걸고 전생의 의미를 묻는 것 또한 동양적(한국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왔다.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큰까마귀」(“The Raven”)에서 까마귀가 반복하는 “다시는 없으리!”(Nevermore!)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선고하며,⁴⁹⁾ 까마귀의 출현은 서사의 종결을 향한 선형적 운동과 결부된다.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까마귀는 이와 다른 위상을 점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족오(三足鳥)는 태양 안에 갇들어 소멸과 재생의 순환을 매개하는 존재이며,⁵⁰⁾ 이 까마귀와 태양의 결합은 중국의 금오(金鳥), 일본의 야타가라스(八咫鳥)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공통의 신화소이다. 까마귀가 종결이 아닌 순환을, 상실이 아닌 인과(因果)의 반복을 표상한다는 점은 이 드라마의 까마귀를 읽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대니는 어릴 적에 다친 까마귀를 주워 와 간호한다며 곤충을 먹이기도 하고(에피소드 6), 지붕 수리를 위해 나무에 오르며 까마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다(에피소드 1). 반면 에이미는 분노에 차 있던 순간에 집안 선물(sunroom)에서 까마귀가 보이자 충을 겨누고 위협한다(에피소드 2). 위에 인용한 까마귀의 대화는 두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까마귀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미의 경우는 베트남 전쟁 중 어머니가 새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던 것을 놓고 볼 때 까마귀와의 악연은 세대를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언급한 설거지 장면에서 에이미의 어머니는 딸에게 “무엇이든 과거의 것은 물어두라.”(Whatever’s going on, put it behind you.)라고 말하는데 에이미는 그런 어머니에게 “몇 세대에 걸친 잘못된 결정이 축적된 기분이에요.”(Generations of bad decisions sitting inside you.)라고 답한다.

49) 신원철, 「에드가 앨런 포와 테드 휴즈의 까마귀」, 『현대영미시연구』 제17권 2호, 한국현대영미학회, 2011, 132쪽 참조.

50) 김주미, 「해 속의 삼족鳥의 構成 要素와 圖像의 象徵的 意味」, 『文化史學』 제51호, 한국문화사학회, 2019, 22쪽 참조.

까마귀에 대한 악행을 놓고 보면 에이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상의 장면들을 종합하면, 까마귀는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배경적 동물이 아니라 구조적 표상으로 기능한다. 대니에게 까마귀는 돌봄과 교감의 대상인 반면, 에이미에게 까마귀는 분노가 투사되는 적대의 대상이다. 같은 존재가 두 인물에게 정반대의 관계 양식으로 반복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까마귀를 구조적 기호로 격상시킨다. 더욱이 에이미의 까마귀에 대한 적대가 개인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전쟁 체험에까지 소급되는 세대적 악연이라면, 이 드라마의 복수 서사는 두 개인 간의 선행적 갈등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순환적 인과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까마귀는 그 순환이 끝나지 않음을-혹은 끝날 수 없음을-반복적으로 환기하는 시각적 표지이다.

성นาม을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와 화념을 인간 본성을 등지는 죄악 된 행위로 본 세네카의 주장은 서로 대립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가 고통을 고통으로 갚는 욕망의 발로로 보는 것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 화는 인간을 양갓음(복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파괴를 초래한다.⁵¹⁾

까마귀들은 자신들에게 행한 악행의 가해자를 기억하고 그들 역시 ‘화가 나’(I am upset.)라고 소리를 내며 가해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까마귀들의 전쟁 선포 직후 에이미가 대니를 향해 총을 겨누자 까마귀가 에이미의 행동을 방해하고 그 틈에 대니는 에이미로부터 도망친다. 까마귀들은 이 행위를 통해 대니의 선행과 에이미의 악행이 모두 결과물을 거두게 하였다. 그러나 까마귀들의 전쟁 행위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대니가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드라마가 종결되는 것을 놓고 볼 때 까마귀의

51) 세네카, 앞의 책, 35, 40쪽 참조.

전쟁은 더 큰 전리품을 얻었다고 보인다. 까마귀에게 선행을 베푼 대니가 왜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지 물을 수 있지만, 드라마의 종결부에 이르러서 내내 반목하던 대니와 에이미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을 볼 때 대니의 상태는 에이미에게도 복수를 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²⁾ 두 사람의 달라진 관계는 혼수상태에 빠진 대니를 에이미가 끌어안는 장면에서 확인되는데, 그 직전 플래시백(flashback)을 통한 에이미의 과거 회상은 에이미가 복수의 감정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플래시백은 운전 중 분노 사건을 비추며 실제 있었던 일과는 달리 사건 당시 대니와 에이미는 서로를 향해 분노를 발하기 전에 멈칫한다. 물론 이 회상은 에이미의 ‘주관적인 진실’이 재현된 것이지만,⁵³⁾ 그 플래시백에 대니의 회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복원이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시청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⁵⁴⁾

드라마에 표상화된 까마귀의 복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아이작의 친구인 마이클과 바비는 대니와 함께 일하며 한 대학에서 수행한 까마귀 연구에 대해 이야기한다(에피소드 5).

마이클: 딕 기억나? 딕과 그 친구?

바비: 난 딕이란 놈 몰라.

마이클: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말이야. 친구 얼굴에다가 총을 쏘잖아.⁵⁵⁾

52) 물론 대니와 에이미의 화해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이후 더 큰 싸움을 한다면 까마귀들의 복수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파괴 행위는 더욱 가열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53) 수잔 헤이워드, 『영화 사전: 이론과 비평』, 이영기·최광열 역, 한나래, 2012, 643쪽 참조.

54) 두 사람의 화해가 인종화된 역사적 경험을 탈색시키는 서구 자유주의의 폭력적 포섭이라는 견해는 권두현, 앞의 글, 50-51쪽 참조.

55)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가 2006년 친구인 해리 워팅턴과 매추라

하버드에서 한 까마귀 연구 알아? 하버드에서 어떤 사람이 딕 체니 가면을 쓰고 까마귀를 괴롭혔더니 까마귀들끼리 소문을 퍼뜨려서 딕 체니가 전국 어디를 가든 까마귀가 공격하더라. 깍깍 울어대고 쪼고 말아야.

실제 까마귀 연구를 수행한 대학은 하버드가 아닌 워싱턴대학이지만 이 실험은 까마귀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했다. 조류인 까마귀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 뇌에서 작용하는 영역이 포유류인 인간 뇌의 영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실험은 입증하였다.⁵⁶⁾

이성진 감독은 “나는 그저 까마귀에게도 자막을 달아주고 싶었어요.”⁵⁷⁾ 라고 말했지만 까마귀의 대화는 단순한 자막 이상의 의미를 드라마에서 형성한다. 동물의 보은(報恩)이나 복수 설화가 오랜 시간 한국인들 사이에 대중적으로 널리 자리 잡은 것은 한국적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려는 심성에 근거한 것이다. 〈성난 사람들〉의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냄과 복수에 주목하자면 동서양 문화의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세네카는 동물이 의지가 없기에 인간에게 부당한 행동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냄과 복수의 순환에서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 화를 내는 행위가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⁵⁸⁾ 〈성난 사람들〉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까마

기(quail) 사냥을 나갔다가 새 무리를 향해 쏜 체니의 총알이 해리 워팅턴의 얼굴을 향하게 돼 워팅턴이 부상을 입는다. 이 사격으로 인해 새 무리들이 죽임을 당한다. 딕 체니의 전기 영화인 〈바이스(Vice)〉(2018)의 후반부에는 이 사건이 묘사되며 체니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체니가 사과하지 않는 행태를 영화는 꼬집는다.

56) John M. Marzluff et al., “Brain Imaging Reveals Neuronal Circuitry Underlying the Crow’s Perception of Human Fa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9, No. 39, 2012, pp.15912-15917 참조.

57) Phillipe Thao, “What Do the Crows Mean in *BEEF*?”, <https://www.netflix.com/tudum/articles/what-the-crows-mean-in-beef-explained>, 2023., (검색일: 2024.11.10.)

귀 표상을 통해 드러내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이 같은 동양적 사유가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한국계 미국인 작가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은 창작집 『딕테(Dictee)』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이민자로서 겪는 삶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증명, 증거물, 사진, 서명. 어느 날, 당신은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고 미국인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미국 여권을 줍니다. 미합중국.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나의 정체를 뺏고 그 대신 그들의 사진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다른 것. 그들의 서명 그들의 날인들. 그들 자신의 이미지. (...) 당신은 돌아가지만 그들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들은 당신을 냉담하게 취급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당신은 언제나 알 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당신을 폭로해 버립니다. 10피트 거리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국적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문제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이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하지만 곧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강조는 인용자).⁵⁹⁾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시민이 되어 미국 여권을 받았지만 그가 한국인으

58) 세네카, 앞의 책, 128쪽 참조.

59) 차학경, 『딕테』, 김경년 역, 문학사상, 2024, 68-69쪽.

로서 지냈던 정체는 뺏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미국 여권에 표시된 출생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기에⁶⁰⁾ 미국인들은 그에게 ‘정체가 무엇이나?’라고 묻는다. 한국계 미국인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답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정체에 대해 자신이 없으며 자신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미국인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지만 미국인은 그가 말을 할 수는 있는지 의심하고 말을 하자 생긴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1982년에 출판된 『딕테』에 등장하는 인용문의 인물이 당했던 차별이 현재의 미국에서도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으나 코비드(COVID)-19 팬데믹에서 목격된 아시아계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은 ‘지속적으로 미국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continuous undercurrent) 반아시아계 감정을 확인시켰다.⁶¹⁾

〈성난 사람들〉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정체성을 재현하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존재이자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임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본고는 이 드라마에 나타난 분노 표현의 재현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이해하게 함과 동시에 아시아계를 모범적 소수계 신화에 가두는 담론에 대한 도전임을 주장하였다. 〈성난 사람들〉에 재현된 아시아 이민자의 정체성은 단일하거나 불변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나 음식 시민권의 재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특수성과 민족적 통합성을 드러낸다. 또한 까마귀 표상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적 사유는 이 드라마의 창작이 한국적 정체성에도 일정 부분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물의 관계 맺음을 단

60) 국적(nationality)만을 표기하는 대한민국 여권과는 달리 미국 여권은 출생지(place of birth)를 표기하는데,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출생지가 미국일 수 없다.

61) 클레어 진 김은 팬데믹 때 벌어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미국 문화의 저류에 흐르는 ‘반아시아계 감정’(anti-Asian animus)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Kim, 앞의 책, pp.352-357 참조.

순히 초현실적이거나 동양적인 사유로만 제한해 그려내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재현함은 인간 보편의 감정을 표제로 내 건 감독의 기획이며 이 기획은 작품성의 인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이민 성공 서사에 가려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세대와 가족 간의 갈등을 깊이 있게 재현함으로써 이민자 정체성을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자 삶의 실상을 짚진하게 묘사하여 많은 관심과 높은 인정을 받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성난 사람들〉에 재현된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의 모습은 전형성에 갇힌 한계를 갖는다. 이 드라마에 재현된 주요 인물의 직업과 경제력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전형적인 인식과 거리가 멀지 않다. 단적으로 에이미의 시가(妻家)가 일본의 저명한 예술가로 설정되어 상류층으로 그려지고, 대니는 잡역부(handyman)에 가까운 건축 도급업자로 그려지는 것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의 왜곡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일본계 미국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19세기 말부터 이미 일본계는 중국과 조선⁶²⁾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계로부터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였다.⁶²⁾ 드라마에 그려진 아시아계 이민자 내의 계층적 위계는 감독 그 자신이 이민자로서 경험한 미국의 삶이 일정 부분 투영됐으리라고 판단된다. 넷플릭스에서 2026년 4월 16일에 공개된 〈성난 사람들〉 시즌 2에도 감독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⁶³⁾ 작가 의식 차원에서 살펴보는 이민자 정체성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62) 위의 책, p.126 참조.

63) 라이프플러스 TV 이성진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oDvrYgImXco>. (검색일: 2026.4.2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성진, 〈성난 사람들(BEEF)〉 시즌 1, Netflix, 2023.

2. 논문과 단행본

권두현, 「아시안 아메리칸의 분노와 사랑: 〈비프〉와 〈엘리멘탈〉, 초국적 감정 산업의 정동 경제」, 『동방학지』 제205집, 국학연구원, 2023, 33-61쪽.

김유진, 「멜랑콜리아와 분노: *Beef* 속 아시아계 미국인 정동의 (비)인종화」, 『현대영미 드라마』 제36권 3호,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23, 57-90쪽.

김주미, 「해 속의 三足鳥의 構成 要所와 圖像의 象徵的 意味」, 『文化史學』 제51호, 韓國文化史學會, 2019, 5-28쪽.

나보령, 「유령을 위한 레시피」, 『인문논총』 제81권 1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4, 143-179쪽.

박은지, 「A24의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동아시아 가족 드라마에 투영된 이민자의 자기정체화와 멜랑콜리아」, 『영화연구』 제107호, 한국영화학회, 2026, 237-272쪽.

신원철, 「에드가 앨런 포우와 테드 휴즈의 까마귀」, 『현대영미시연구』 제17권 2호, 한국현대영미시학회, 2011, 123-148쪽.

이윤중, 「21세기 인종질서 속 동양인들의 위치」,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309-335쪽.

이지행, 「아시아 이주민과 아포칼립틱 빌런 정동」, 『아시아영화연구』 제18권 1호, 영화연구소, 2025, 77-105쪽.

전두영, 「『화두』에 나타난 독서 행위와 상호텍스트성 양상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98집,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23, 195-219쪽.

차학경, 『딕테』, 김경년 역, 문학사상, 2024.

한경희,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계 미국인 서사에 나타나는 인정 욕망의 젠더화 방식 및 그 의의」, 『상허학보』 제74집, 상허학회, 2025, 173-214쪽.

- 한미야, 「『H마트에서 울다』를 통해 생각해 보는 음식과 치유의 문제」, 『문화과환경』 제23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24, 247-268쪽.
- 그레이스 M. 조, 『유령 연구』, 성원 역, 동녘, 2025.
-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화에 대하여』, 김경숙 역, 사이, 2013.
- 미셸 자우너, 『H마트에서 울다』, 정혜윤 역, 문학동네, 2022.
- 비엣 타인 응우옌, 『동조자』, 김희용 역, 민음사, 2023.
- 수잔 헤이워드, 『영화 사전: 이론과 비평』, 이영기·최광열 역, 한나래, 2012.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길, 2011.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7.
-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 권기돈·하주영 역, 새물결, 2015.
- 캐시 박 흥, 『마이너 필링스』, 노시내 역, 마티, 2021.
- Kim, Claire Jean, *Asian Americans in an Anti-Black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 Mannur, Anita, "Culinary Nostalgia: Authenticity, Nationalism, and Diaspora",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Vol. 32, No. 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1-31.
- Marzluff, John M., et al., "Brain Imaging Reveals Neuronal Circuitry Underlying the Crow's Perception of Human Fa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9, No. 39, 2012, pp.15912-15917.

3. 기타자료

- 김희경, 〈‘성난 사람들’의 글로벌 열풍〉, 『한경BUSINESS』 제1469호, 한국경제매거진, 2024.
- 넷플릭스 시청 시간 보고서, <https://about.netflix.com/ko/news/what-we-watched-a-netflix-engagement-report>. (검색일: 2024.11.10.)
- 라이프플러스 TV 이성진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oDvrYgImXco>. (검색일: 2026.4.22.)

이다혜, <“복잡하고 모순적인 캐릭터가 흥미롭다”-『동조자』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 인터뷰>, 『씨네21』 제1414호, (주)씨네21, 2023.7.18.

최민지,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 “한국적인 것,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통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2023.8.17.

Poniewozik, James, “‘Beef’ Review: Mad in America”, *The New York Times*, 2023.4.5.

Thao, Phillipe, “What Do the Crows Mean in *BEEF*?”, <https://www.netflix.com/tudum/articles/what-the-crows-mean-in-beef-explained>, 2023. (검색일: 2024.11.10.)

Abstract

A Study on Immigrant Identity in *BEEF*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presentation Methods of Cultural Citizenship and the Circulation of Revenge

Jeon, Dooyoung(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dentity of Asian Americans as represented in Season 1 of the Netflix series *BEEF* (2023), centering on two analytical axes: cultural citizenship and the cycle of revenge.

The anger and violence expressed by the drama's protagonists function as resistance against the oppressive structure of the model minority myth. This resistance does not remain confined to the individual psyche but extends into intergenerational and interfamilial conflict,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process by which immigrants negotiate and claim cultural citizenship within mainstream society. Meanwhile, the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a cycle of revenge—triggered by a trivial road rage—endlessly recurs and escalates exposes the roots of anger long concealed beneath the immigrant success narrative. Furthermore, *BEEF* reveals an Eastern philosophical insight—that all things are interconnected—through the symbolism of the crow and through scientific evidence, thereby positing the cycle of revenge not as a mere narrative device but as an epistem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world. This study argues that, beneath this anger, there lies an exilic and refugee-like experience of losing one's homeland and suffering cultural rupture—an experience that transcends the simple motive of economic migr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critically reexamines the dominant assimilation-and-success narrative frame that has long governed Asian American immigrant narratives, and illuminates the distinctive position that *BEEF* occupies

within the broader landscape of Asian American storytelling.

(Keywords: immigrants, Asian Americans, cultural citizenship, identity, exile, refugees, model minority myth, culinary citizenship)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8일